

# 무역서 외교·군사까지...미·중 전면전 확산

미, 2000억 달러 추가 관세 무역전쟁 2라운드 돌입  
대만·남중국해 등 곳곳 충돌  
30년만에 '신냉전' 그림자

미국이 2000억 달러 어치의 중국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하게 됐다. 국제사회에서는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죽기살기식 무역 분쟁을 벌이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교·군사 분야에 서까지 접어들어 맞서면서 소련 붕괴 이후 30년 만에 '신냉전'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지난 24일부터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이런 우려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예고한 것처럼 이날 0시부터 2000억 달러 어치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지난 7~8월 두 번에 나눠 총 500억 달러 어치의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긴 데 이어 추가 조치다. 이로써 관세 부과 대상은 전체 중국 수입품의 절반으로 확대됐다. 중국도 미국 제품 600억 달러 어치에 추가로 5~1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어 양국 간 무역전쟁은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관세 부과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양국의 소비자들에게도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의 불뚱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미중 양국이 '치킨 게임'에 몰두하면서 대화를 통한 극적 국면 전환은 더욱 요원해지는 모습이다. 애초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오는 27~28일 워싱턴DC에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중국 측이 협상 입장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이날 발표한 '백서'에서 미국이 관세부과 등의 극단적인 압력을 가해 '경제적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중국과 담판의 문은 결코 열려 있지만, 관

세라는 동등으로 위협하는 속에서는 담판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중국에서는 미국의 대중 무역 압력이 단순한 통상 마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부상을 억지하려는 전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까지는 미중 극적인 대화 동력이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무거워지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과 중국은 최근 외교·군사적으로도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러시아에서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인 '동방-2018'이 진행되고 중국군이 대규모로 가세한 것은 '신냉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기우만은 아님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러시아에서 무기를 구매할 중국 군부를 제재하고, 중국 당국은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추방하는 등 초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전선이 더욱 넓어졌

다. 중국이 러시아에서 수호이(Su)-35 전투기 10대와 방공미사일시스템 'S-400'을 구매한 것이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중국 인민해방군 무기 구매 부서와 책임자를 제재 대상에 올리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도 미중 양국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방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판을 흔들고 있다며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도 미국이 중국을 자극하는 행적이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 집권 이후 대만 정부를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 등 이웃 국가와 치열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은 중요한 국제 수송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해군 군함을 파견하는 등 중국의 남중국해 독식에 견제구를 날리고 있어 군사적 충돌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 美 소비심리 닷컴붐 이후 18년만에 최고 9월 신뢰지수 138.4...2분기 성장률 4.4% 호황

호황을 구가하는 미국에서 소비심리가 무려 1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미국 비영리 민간 경제조사기관인 콘퍼런스보드는 미국의 9월 소비자신뢰지수가 8월 134.7에서 138.4로 뛰어올랐다고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수치는 2000년 9월 144.7을 기록한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콘퍼런스보드는 144.7은 9월 소비심리로는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라며 현재 수위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당시 높은 소비심리는 1990년대 미국 경기를 떠받친 정보기술 분야의 호황인 이른바 '닷컴붐' 여파였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신뢰지수는 소비심리를 나타내

는 대표적 지수다. 높을수록 소비자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사들일 의향이 커 경기가 뜨거워질 것이라는 의미한다. 앞서 미국 미시간대도 9월 초 미국의 소비심리가 2004년 이후 두 번째로 높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WSJ는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전쟁을 향후 12개월 동안의 리스크라며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그런 표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설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선진국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과 함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실업률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2%를 기록했다. 높은 소비심리는 이 같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합뉴스

# 성폭행 혐의 코미디언 코스비 징역 10년형

미투 촉발후 유명인 첫 유죄  
성폭행 혐의로 재판받은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80)에게 법원이 최종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스티븐 오닐 판사는 25일(현지시간) 코스비에게 약물 투여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징역 3~10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코스비는 지난해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폭로로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 촉발 이후 미국의 유명인사 가운데 처음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인물이 됐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코스비쇼'를 통해 할리우드의 인종적 장벽을 뚫고 미국의 '국민 아버지'로 불

릴 만큼 성공한 코미디언으로 우뚝 선 코스비는 결국 말년에 성폭행범으로 낙인 찍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 오닐 판사는 "미스터 코스비, 이제 심판의 시간이 됐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유명인인 것이 아니더라도 처벌받을 수 없다"면서 "악물에 의한 성폭행은 매우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닐 판사는 코스비에게 벌금 2만 5000달러(2791만원)를 부과했다. 또 코스비를 성범죄자 목록에 등재하도록 관련 기관에 요구했다. 코스비의 변호인단은 그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가택연금에 처할 것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코스비는 선고 직후 수감입이 채워진 재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연합뉴스

# 브라질 '좌파 아이콘' 톨라 10월 선거 강력 영향력

대선·주지사 선거 친롤라 강세  
브라질 선거 정국에서 '좌파 아이콘'으로 불리는 루이스 이나시우 톨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강력한 변수가 되고 있다. 브라질 주요 언론은 대선은 물론 주지사 선거와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의원 선거에서도 톨라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특히 북동부 지역의 주지사 선거에서는 톨라 전 대통령이 속한 좌파 노동자당(PT) 후보와 친(親) 톨라 후보들이 강

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동부 최대 지역인 바이아 주를 비롯해 최소한 5개 주의 주지사 선거에서는 친 톨라 후보가 1차 투표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주에서도 친 톨라 후보의 강세가 점쳐진다. 앞서 북동부 지역 주지사 후보들은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일찌감치 남부 쿠리치바 시내 연방경찰청에 수감된 톨라 전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친 톨라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 아베, 유엔 연설서 북한과 국교 정상화 강력 피력

압력·제재 언급 피하고  
"김정은 위원장 만나겠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회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그동안 국제사회를 향해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를 언급하지 않는 한편, 북한의 잠재력이 발휘되도록 돕겠다고 경제 협력을 약속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연설에서 "북한의 납치,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 정상화를 지향하는 일본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가진 잠재력이 발휘되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도 북한과의 상호불신의 걸림을 깨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 볼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의 내용은 작년 아베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전체 연설 분량의 80% 가량을 할애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강하게 비난하고 국제 사회에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를 호소했던 것과 180도 달라진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회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연설에서는 북한 관련 내용이 전체 분량의 10% 가량으로 줄었고 ('북한에 대한)압력'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그 대신 미국의 일본에 대한 통상 압박을 염두에 두고 자유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일본이 전후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자유무역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자유무역체제의 보전과 강화는 일본 역사의 사명이다. 자유무역의 기수로서 세계 경제의 체계 강화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무역 협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윈(win)-윈'의 관계를 계속하고 싶다"며 일본의 대미 투자에 따른 직접 고용자수와 일본 자동차 제조사의 미국 내 자동차 생산대수를 열거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자화자찬 연설에  
유엔총회 정상들 웃음세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을 관통한 화두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였다. 그러나 자국의 주권과 '세계화(글로벌리즘·globalism) 배격'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다시 한 번 전통적 국제외교·무역 질서의 판을 흔들어 놓으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찬 구상은 연설 초반 삐끗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다 각국 정상 등 총회 참석자들의 '웃음 세례'로 잠시 스타일을 구기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초반 자못 진지한 표정으로 자찬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나의 행정부는 미국 역사를 통틀어 다른 거의 모든 행정부보다 많은 성취를 이뤘다. 미국은... 너무나 진짜 상황이다." 유엔 회원국 정상과 외교관들이 운집한 청중들 사이에서 이 시점에서 '키키키키' 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잠시 연설을 멈춘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괜찮다"고 청중의 웃음에 즉흥 발언을 던졌다. 다른 나라들의 요구 충족보다 미국의 주권 확립이 우선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동안 그 자신이 웃음거리로 전락하면서 '승리의 순간'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